‘한국불교 발전적 계승’ 원융종 학술대회 연다

9월 27일 AW컨벤션센터서

대한불교원융종(원장 진호)이 9월 27일 오후 1시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한국불교의 발전적 계승과 현대 사찰경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불교원융종은 부처님을 교조로, 태고보우국사(太古普愚國師)를 종조로 하여 1977년 창종과 함께 1982년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이다. 종단 소속 사찰은 300여 개로 미국 오클라호마와 일본에 포교당을 두고 있다.

대한불교원융종은 1991년 3월 26일 여러 종단을 하나로 회통하는 통불교적 성격을 담아 불교의 핵심교리와 실천수행과제를 총망라한 〈원융종전〉을 발간한 바 있다. 2010년 3월에는 〈통일 법요집〉과 〈상장례의식 법요집〉을 편찬 발간해 의식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했다.

대외적으로는 국내 최초로 일본불교변천종과 자매결연을 맺어 일본불교와의 교류확장에 나섰으며, 중국불교계와도 교류의 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또한 국제불교 활동과 함께 국내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포교사업과 복지사업에 중점을 둬 매년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잔치와 생필품 전달 및 불우청소년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과 함께 대한불교원융종은 창종 40주년을 맞아 2017년 6월 2일 ‘제1회 대한불교원융종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으며, 포교 향방을 정립하기 위한 학자와 전문가들의 고견을 청취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원융종 창종 정신에 담긴 원융회통사상의 실천과 코로나19와 같은 질병과 재난에 대응하여 사찰을 운영할 수 있는 한국불교의 발전적 계승을 모색하는 자리다.

학술대회서는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한국불교의 발전적 계승과 현대 사찰경영’을 주제로 기조발제하며, 조준호 고려대 교수가 ‘붓다의 삶에 기반한 한국불교의 역할과 원융종지’를, 박경준 동국대 명예교수가 ‘불교의 인간관, 세계관, 경제관의 현대적 계승’ 등을 발표한다.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2017년 제1회 학술세미나를 연 이후 포교 방향과 불교 발전을 위해 학자와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있다. 서구 기독문명의 확산 일로에서 사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로 관심을 당부했다.

(02)396-2442 노덕현 기자

산사서 특화 문화재 체험해볼까

문화재청, 내년 지역문화재 사업 400선 선정

전통산사 42곳 활용사업 등재
금선사 등 특색 프로그램 운영
고택 · 서원 · 향교 등 활용도
문화유산 활용해 경제 활성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통산사 42곳에서 특화된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내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42선을 비롯해 ‘문화재야행’ 42선, ‘생생문화재’ 160선, ‘향교 · 서원 문화재 활용’ 116선, ‘고택 · 종갓집 활용’ 40선 등 총 40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사업은 문화재청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되고자 기획됐다.

올해 공모에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총 544건이 접수됐데,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총 400선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인문학적 정신 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공연 · 답사 등의 형태로 체험할 수 있는 고품격 산사문화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총 54건의 응모된 공모사업 중 42건을 선정됐다. 선정된 주요 산사와 프로그램들은 △오대산 월정사의 ‘오대산 산사 천년의 울림’ △대구 동화사의 ‘동화사 문화재 학교’ △예산 수덕사의 ‘수대반(수덕사 대웅전에 반하다)’ △고창 선운사의 ‘도솔산 선운사 산중 기행’ △구례 화엄사의 ‘가자 화엄세상으로’ △김제 금산사의 ‘마음 쉬는 일요일’ 등이 있다.

이밖에도 선정된 산사들은 저마다의 특색과 고유의 이야기를 담은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참배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중 가장 먼저 시작된 ‘생생문화재’ 사업은 숨겨진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해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형 사업이다.

이중에는 불교문화재를 활용하는 사업들도 다수다. 올해 처음 이름을 올린 강원도 철원군의 ‘문화재 속 숨은 이야기 찾기’는 국보 제63호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과 철원 노동당사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원주시는 6년 이상 지속해온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 판화학교’와 함께 사적 제466호 원주 법천사지와 국보 제59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을 활용한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을 품다’를 진행한다.

양주시는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와 관련 보물들을 활용한 ‘생생 탐험 현장, 회암사지의 8가지 보물’을, 구리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묘소와 망우동 독립유공자 묘소에서 선열을 기리는 ‘망우, 힐링산책’을 운영한다.

문화재청은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높아 내년에는 사업을 보다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맞춤형 활용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고, 활용 전문 인력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가 발굴한 고려 초기 석불입상.

북한산서 고려 초기 석불입상 발견

북한산공원사무소 12일 발굴
2m 크기 · 10세기 제작 추정

북한산 인수봉에서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불입상이 발견됐다.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기연)는 “공원 내 산재해있는 비지정문화재 정밀조사 중 북한산 인수봉 아래에서 고려시대 초기 석불입상을 발굴했다”고 9월 14일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4월경 흙에 반쯤 묻혀 있는 석불로 추정되는 바위를 발견했고, 문화재청의 발굴 허가를 받아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 12일 바위를 뒤집었고, 머리가 없는 불상의 몸통이 확인됐다. 불두(佛頭)는 몸통 다리 끝의 땅속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얼굴의 형태와 몸통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었고, 불두는 짧은 코와 두툼한 입술에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석불입상의 몸체는 높이 2m · 폭 65㎝, 머리는 높이 60㎝ · 폭 45㎝로 전체 높이는 260㎝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웅기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지원보전과장은 “북한산 인수석불입상은 10세기에서 11세기 석불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내 발견된 여래상 중 머리에 쓰는 보계를 꽂는 촉이 남아있는 석불입상은 드문 경우여서 연구사적,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발굴을 계기로 공원 내 산재해 있는 숨어있는 역사적 보물의 가치를 밝히고, 문화재청, 지자체와 협력해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관음종, 코로나 극복 위한 마스크 후원

종단 소속 사찰 · 지역사회에
마스크 1만 3000여개 전달
1000만원 상당 규모 ‘눈길’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마스크 지원에 나섰다.

관음종은 9월 17일 관음종 총본산 낙산묘각사에서 전달식을 열고 숭인 1 · 2동 지역주민센터 등에 마스크를 전달했다. 이날 관음종이 후원한 마스크는 총 1만3000여장. 지역주민 뿐 아니라 관음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종단 소속 사찰에도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 재확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마스크 지원은 종단 소속 사찰인 양주 대원정사에서 수해 및 코로나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300만원을 기탁하면서 시작됐다. 관음종은 대원정사가 기탁한 나눔기금에 종단 차원에서 700만원을 추가로 보시하는 등 원력을 더해, 지역 내 소외이웃을 위해 마스크를 지원키로 했다. 또 지난 9월 9일 종무회의에서 종단 소속 사찰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마스크 지원의 건을 의결하고, 전국 소속 사찰에도 각 50장 상당의 마스크를 배송했다. 이번 마스크 지원에 사용된 기금은 총 1000만원 가량으로, 관음종복지재단도 함께 동참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9월 17일 관음종 총본산 낙산묘각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동준 숭인 2동 주민센터장(동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숭인 1동 직원들이 참석했다. 김동준 동장은 “경제적 여건으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외주민들에게 더없이 든든한 감염예방 물품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관내 독거 어르신을 비롯한 저소득 주민 등에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관음종과 낙산묘각사가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데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고민하던 중 요즘 코로나 재확산으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재차 원력을 냈다”며 “코로나 사태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다들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불자들이 더욱 수행하고 정진해 난국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청각 장애인 불자들의 ‘화엄만다라’

조계사 원심회 만다라 展, ‘고요 속에 비친 내 마음’

비로자나국제선원 내 갤러리 까루나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조계사 장애인 전법팀 원심회의 만다라 전 ‘고요 속에 비친 내 마음’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임수진 씨의 만다라 지도와 원심회 수어통역사들의 통역지원을 받은 20여 명의 원심회 청각장애인들이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매월 1회 작업하여 만든 만다라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에 참여한 청각장애인들은 들을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 평소에 느낀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을 그림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소리 없는 세계의 만다라를 그려낸다. 회원들은 만다라를 완성한 후 각자가 그린 만다라를 통해 색다른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만다라 전이 열리게 된 계기는 매주 일요일 원심회 청각장애인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등 장애인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일원스님의 교육비 후원에서 비롯됐다.



1988년 11월 창립한 조계사 장애인 전법팀 원심회는 장애인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로 현재 청각장애인과 불자수어통역사들이 함께 활동하며 수어법회, 수어교육 등 다양한 포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원 스님은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부터 원심회 청각장애인포교를 시작했다. 현재 청각장애인 법당 마련을 위한 불사를 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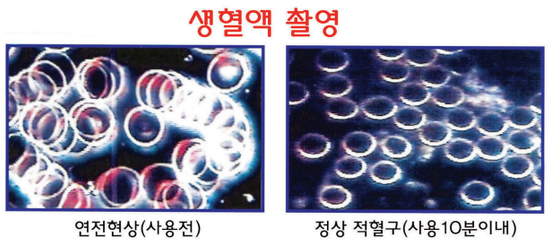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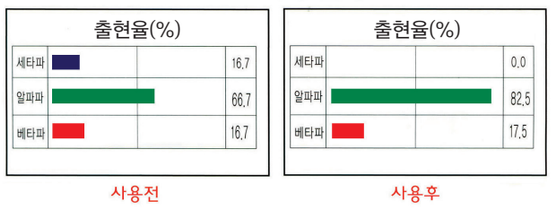
항균(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발뒷꿈치 각질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정상적혈구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 목·어깨·허리 통증과 무릎관절,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2개 = 3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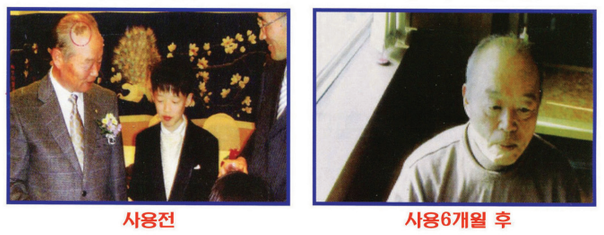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주)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주)에이스 삼강